

내 멋대로 살 테야

(흔외정사 4)

I. 두통을 앓는 여인

그녀는 “빠개질 듯 아프다”는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처음 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자신은 ‘편두통’이라고 하였지만 임상적인 증상의 형태로 보아서는 편두통이 아니라 신경성 두통이었다. 몇 차례의 진찰과 면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장차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남자와 동거 중이었다. 그녀는 때로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하는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는다고 했으며, 때로는 시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대한 불만스러움 같은 것이 많이 있음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기도 하였다. 비록 결혼을 약속하였다고는 하여도 혼전에 동거를 하는 상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녀는 지속적인 두통에 시달렸다.

어느 날 그녀는 진료 시간이 끝난 늦은 시간대에 갑작스레 병원을 찾았다. 무언가 심란한 표정에 한숨까지 곁들이던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하는 질문에 내뱉듯이 대답했다.

“아, 그 자식, 별 걸 다 요구하잖아요. 늙은 자식이 맨 날 포르노만 봤는지 그 이상한 것들을 다 하게 하고 아주 갖고 놀아요.”

의외의 대답이었다. 분명히 성적(性的)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녀는 동거 중인 그 남자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이 많은 놈팡이’를 들먹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판에 갑자기 혼란이 왔다.

“혹시 내가 다른 환자와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녀는 그런 분위기를 금방 눈치 챘는지 나의 이해를 도와준다며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남자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에 사는데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는데요, 사귀어 보니까 다른 남자들 보다 씹씹이가 괜찮았어요. 용돈도 잘 주고요. 이웃도 그 남자가 사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이 씨... 섹스 할 때면 꼭 이상한 것만 해요.”

그녀는 나의 눈치를 힐끗힐끗 살피면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제 밤에 신랑한테는 친구 집에서 잔다고 그러고 여관에 그 남자랑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 얼마나 굶었는지 밤새 지랄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짜증이 다 나더라고요. 용돈을 잘 주니까 좋긴 한데, 에이 씨 그 남자는 이제 그만 만나야겠어요.”

몇 주 뒤에 그녀가 다시 찾아왔다. 몹시 불안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잔다고 했다.

“그럼 그렇지, 드디어 꼬리가 밟혔군.”

나의 상상은 얼마나 단순한 것이었는지! 그 때까지만 해도 그 “늙은 놈팡이” 때문인 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잘 못 되어 동거 중인 남자에게 들켰겠거니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 그 늙은 아저씨 말인가요? 거긴 안 만난 지 꽤 되었지요. 지저분해서 안 만나기로 했어요. 다른 남자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아저씨도 그 때 계속 만나던 사람인데요, 글썄 어제 그 남자의 마누라라는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더 만나면 죽여 버린다고 그러대요. 아이 씨, 겁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신랑이 왜 잠을 못 자냐고 해서 그냥 머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여자가 찾아올 것 같아서 직장에도 결근했어요.”

그녀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동거 중인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고 있는 남자가 그 당시 세 명쯤 더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더구나 그녀는 “을 겨울 넘어가기 전에 신랑하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요. 양측 부모님도 합의 되었어요” 라고도 하였다.

이 젊은 여자의 기이한 성적 행각을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했다. 분명히 정신병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는 자아 기능이 무너져 내린 상태도 아닌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이해하기에 곤란한 어떤 정신적 메커니즘이 오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만 어렵듯이 이해될 뿐이었다.

II. 그녀는 지금 벌을 받는 중

“나도 때로는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공언하며 자신의 남성 편력을 서슴 없이 공개하는 텔런트도 있는 세상이니까 그게 무슨 대수냐 싶기도 하겠지만, 같은 시간대에 서너 명의 남자와 성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이 젊은 여인의 애정 행각은 아무래도 예상밖지가 않았다.

정신과 의사라면 보통 궤도에서 이탈(逸脫)한 행동을 하는 환자를 보는 관점은 그 행동 자체가 결코 아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끔 몰아가는 의식적이고 또 무의식적인 동기(動機)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데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수차례의 면담이 계속되는 동안 얻어지는 객관적인 정보와 환자 자신의 주관적인 호소는 사건의 배경과 그 인물의 동선(動線) 궤적을 역으로 추적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추론(推論)하는 재료로 이용한다.

그녀의 경우에도 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와 그 심리적 배경, 매 사건마다 움직이는 심리적인 동요와 거기 동반되는 주관적인 불안의 정도 등이 면밀히 검토되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은 대강 이러했다.

첫째, 그녀 자신은 육체적인 접촉이나 성적 만족에 대한 갈망이 보통 수준을 넘는다는 증거가 없었다.

둘째, 그녀는 얼굴 생김새나 몸매가 남성을 미혹되게 할 만큼 섹스어필하지 못 했다. 오히려 보통 수준보다 한 수 아래였다.

셋째, 그녀는 미혼의 남자들과는 정사를 벌이지 않았다.

넷째, 통정(通情)하는 남자들의 부인이 눈치를 채지 못 하게 하는 치밀한 계산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남자들의 부인이 눈치를 채면 불안해하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늘 두통을 앓았다.

오랜 기간이 흐른 후 그녀의 어머니와 면담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모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부모들에게서 그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다른 여자들을 집적거리며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술집 여자와 함께 잠적해 버려서 몇 달을 가족들이 불안에 떨며 살았고 그런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에는 어머니와 대판 싸움이 벌어져서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다. 그녀는 오 남매의 막내였으나 이런 불안정환 가정환경 하에서 전혀 부모의 귀여움을 받지 못 하고 자라났다.

그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회상했다. 이런 생각들은 그녀가 대학을 다니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녀는 '뒤쳐지는' 외모 때문에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찬밥 신세였다. 그리하여 적개심과 열등감은 그녀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견인차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어떤 직장에서 당차게 일을 하며 인정을 받았다. 그런 후에는 자신보다 못한 지금의 이 남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동거하는 남자에게는 늘 폭언과 시비로 싸움을 걸고 그로 하여금 '찾김에' 외박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것 봐,

남자라는 인간들은 다 짐승들이라니까” 하면서 자신은 다른 남자와 ‘부킹’을 할 나름대로의 이유를 만들어 냈다.

그녀가 아무 남자와 하거나 마구 성 관계를 갖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동거하는 남자에 대한 학대였다. 동시에 그 남자들이 부인들에게 바람피우는 일이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을 투사하는 행위였다. 그것은 또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처벌받을 길을 열어 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학 다닐 때 심한 우울증과 자책감으로 자살을 한 번 시도한 적이 있다. 술과 담배와 적개심과 난잡한 성행위, 그리고 불안과 두통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인생은, 그러나 통찰력의 결여로 한동안 같은 과정을 쳇바퀴 돌 듯 반복하였다. 사실상 그녀는 자신도 느끼지 못 하는 피학증(masochism)으로 자신을 괴롭히며 살고 있었다.